



제 목 : 2021학년도 기후변화주간 운영 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우리학교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,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는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합니다. 한 주 동안 운영되는 기후변화주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더불어 가정에서도 지구 사랑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.

🌱 지구의 날과 기후변화주간,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

-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에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.
- 우리나라는 지구의 날부터 한 주 동안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지구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구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

🌱 '기후위기 대응 행동',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.



기후 먹거리의 날 운영



초록 독서, 초록 실천



종이 없는 회의, 공책 있는 공부



건강도 챙기고, 지구도 지키고



쓰지 않는 플러그, 잠시 안녕



뚜벅뚜벅 녹색 등교·출근



먹을 만큼 사고, 먹을 만큼 담고



우리 같이 용기 내요



덜 소비하고, 더 많이 나누기

2021년 5월

경희고등학교장

모두 실천

전등 끄고, 별빛 · 달빛 켜기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-	-	○	○

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!

- 4월 22일은 제51회 지구의 날입니다.
-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,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에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.
- 우리나라는 지구의 날부터 한 주 동안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지구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.

지구의 날 선언문!

- 제1회 지구의 날,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.
- 초록색 글자에 힘을 주며, 지구의 날 선언문 첫 부분을 읽어보세요.

오늘 우리는 우리의 땅, 우리의 하늘,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. 우주 가운데 단 하나뿐인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를 오염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100여 개국 수억의 인구가 지구의 날을 선포한 오늘,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자손만대 굳건히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다짐한다.

전등은 끄고, 별빛 · 달빛을 켜보세요! 실천해볼까요!

-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내 방과 우리 집 전등을 꺼보세요.
- 전등 대신, 별빛과 달빛을 켜보세요.
- 온 가족 함께 달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. 이 모양 달을 만날 수 있습니다.



- 가족 모두 손을 잡고 둘러앉아 서로의 체온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.
- 지구를 위해 양보한 10분 동안, 지구는 잠시 쉬며 조금 더 시원해지고 어둠 속에서 우리 가족의 사랑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.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-	-	○	○

채식, 그게 뭐죠?

- 고기류를 피하고 채소, 과일,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먹는 것을 채식이라고 합니다.
-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.

채식, 왜 하나요?

-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
 - 고기 위주 식습관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지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- 가축 사료용 곡물 생산을 위해 베어 없애야 하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- 가축 사육용 땅을 마련하기 위해 없애는 지구의 초록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- 가축 사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- 식용 가축 공장식 축사에서 학대당하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- 공장식 축사에서 쉽게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을 줄여 동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채식의 유형, 어떻게 나뉘나요?

- 크게 Vegetarian(베지테리언)과 Semi-Vegetarian(세미베지테리언)으로 구분합니다.
- 허용하는 음식 재료 범위에 따라 채식의 유형은 다양합니다.
-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.

Vegetarian (베지테리언)	비건 (Vegan)	
	락토 베지테리언 (Lacto)	
	오보 베지테리언 (Ovo)	
	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(Lacto Ovo)	
Semi-Vegetarian (세미베지테리언)	폴로 채식 (Pollo)	
	페스코 채식 (Pesco)	
	플렉시 테리언 (Flexitarian)	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○	○	○	○

🌱 책을 좋아하는 사람, 지구를 위한 초록 독서!

- 기후 위기, 지구 온난화 등 지구 건강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습니다.
- 읽은 책에서 알게 된 지구 건강을 위한 비법이 무엇인가요?
- 지구를 건강을 위한 비법을 내가 먼저 실천하면 초록 독서 성공!

🌱 온 가족 집콕 독서, 지구를 위한 우리 가족 초록 독서!

- 기후 위기, 지구 온난화 등 지구 건강과 관련된 책을 찾아봅니다.
-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읽을 책을 선택합니다.
- 한 권만 사서 돌려가며 읽습니다.
- 책에서 알게 된 지구 건강한 비법을 우리 가족 먼저 실천하면 초록 독서 성공!

🌱 친구들과 함께 초록 독서, 초록 약속!

- 코로나19로 대부분 학교에서 도서 대출만 가능한 지금, 학생들이 지구 건강에 관한 책을 쉽게 찾고 빌릴 수 있도록 학급이나 학교 도서실에 초록 독서 코너를 만들어 보세요.
- 초록 약속 나눔 게시판도 함께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.
- 초록 독서 코너의 책을 빌려 가 읽고,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초록 약속을 종이에 써서 초록 약속 게시판에 붙입니다.
-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약속을 실천하면 초록 독서 성공!

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○	○	-	○

🌱 1004회의, 그게 뭐죠?

• 1004회의

- 회의 자료는 1일 전 미리 공유하기
- 명패 제로(0), 기다림 제로(0)
- 꼭 필요한 종이 회의 자료는 4쪽 이내로 정리

➔ **1004**

• 1004회의로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.

- 종이 없는 회의로 인쇄물을 줄이고 나무를 보호합니다.
- 회의 문화 변화가 지구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

🌱 공책 있는 공부, 그게 뭐죠?

• 공책: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도록 백지로 매어 놓은 책 (출처: 국립국어원)

• 공책을 쓰면 지구가 푸르러집니다.

- 학습지나 문제지를 공책이 대신하여 인쇄물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종이를 만들기 위해 베어내야 하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• 공책 있는 공부, 나를 위한 공부입니다.

- 내용과 생각을 정리하며 공책에 쓰는 과정은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.
- 내가 공부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모여 나의 공부 역사가 됩니다.
- 공책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보기 편하고 가방 정리도 쉽습니다.

🌱 한 사람이 평생(약 80년) 동안 사용하는 종이는 나무 약 80그루!

- 여러분이 살면서 쓰는 종이가 얼마나 될까요?
- 8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, 약 80그루입니다.
- 종이를 아끼는 것,
나무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.

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○	○	○	○

플로깅(줍깅), 그게 뭐죠?

- 플로깅(plogging)은 ‘이삭줍기, 줍다’라는 의미를 가진 스웨덴어(plocka upp)와 영어 단어 달리기(Jogging)가 합쳐진 말입니다.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(Jogging)한다는 뜻으로 ‘줍깅(Jubging)’이라고도 합니다.
-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으며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합니다.

플로깅(줍깅), 왜 하나요?

- 그냥 걷고 뛰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큼니다.
 -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것이 전신 운동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.
 - 쓰레기를 주울 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스쿼트 동작과 비슷하여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.

항목	30분 달리기	30분 플로깅
소모 열량(kcal)	235	288

<출처: 스웨덴 피트니스 앱 라이프섬(Lifesum) 통계>

- 지구를 깨끗하게 합니다.
 - 공원이나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며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합니다.
 - 주운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.
- 누구나, 언제,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 - 동네와 내가 있는 주변 어디든 걷거나 달리고 싶은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.
 - 혼자 시작할 수도 있고,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.

지구를 위해 걷고 달려요, 플로깅(줍깅) 실천해볼까요!

- 출발 전
 - : 편한 옷과 신발, 집게, 쓰레기 모을 봉투를 준비합니다.
- 출발, 그리고 걷거나 달리기
 - : 걷거나 뛰며 주변의 쓰레기 주워 봉투에 모읍니다.
- 마무리
 - : 내가 주운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손을 씻습니다.

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○	○	○	○

이런 모습, 본 적 있나요?



< 출처: 서울교육나침반 >



출처: 매일안전신문 2019. 11. 18. >

- 전기제품을 사용하려고 플러그를 꽂은 모습입니다.
-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어 편리한 멀티탭도 흔히 사용합니다.

여러분 주변에 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, 생각해 보세요!

- 지금 정말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의 플러그인가요?
- 가끔 사용하는 전기제품 콘센트가 꽂혀 있지는 않나요?
- 멀티탭 끄는 것을 깜빡 잊은 건 아닌가요?

플러그 쉬기, 왜 하나요?

- 대기전력을 아껴 전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- 대기전력: 전기제품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대기 상태 유지를 위해 소비하는 전력
 - 일반적인 가정에서 대기전력으로 낭비하는 전력:가정 소비 전력의 6~11%
- 절약한 대기 전력 덕분에 생산해야 하는 전기량이 줄어듭니다.
- 생산 전기량이 줄면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실제로 쓰지 않지만 지불했던 전기 요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.

가전제품 쉴 때 플러그도 쉬기, 실천해볼까요!



출처

: 한국서부발전(주)



출처

: poscoNEWSROOM



- 쓰지 않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거나 멀티탭 끄기
-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·멀티탭 사용하기
- 대기전력 저감기준 만족제품 구입하기
- 일정한 시간에 플러그 점검하는 습관 갖기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○	○	○	○

🌱 **녹색 등교·출근, 그게 뭐죠?**

-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입니다.
- 꼭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때, 연료 소모를 줄이는 친환경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.

🌱 **녹색 등교·출근, 왜 하나요?**

- 건강을 지켜줍니다.
 -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.
 -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합니다.
 -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.
-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줍니다.
 - 한 사람이 주 1회 실천하면, 연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주 1회 녹색 등교·출근	CO ₂ 저감량	비용절감효과	나무식재효과
걷거나 자전거 이용	25.1 kgCO ₂	17,672원	3.8 그루
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	469.4 kgCO ₂	330,022원	71.1 그루

<출처: 한국 기후·환경네트워크>

🌱 **녹색 등교·출근, 실천해볼까요!**

-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,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고 출근합니다.



출처: 내 손안에 서울
< 걷기 >



출처: 내 손안에 서울
< 지하철 이용하기 >



출처: 내 손안에 서울
< 버스 이용하기 >

🌱 **개인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, 친환경 운전으로 녹색 등교·출근 실천합니다!**

- | |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속도(60~80km/h) 지키기 -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! - 주행 중, 에어컨 사용 줄이기 - 정보운전 생활화하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급(급출발, 급가속, 급감속)하지 않기 - 정차 시, 신호대기 시 기어는 중립으로 - 자동차를 가볍게, 트렁크를 비우기 - 주기적 자동차를 점검·정비하는 센스! |
|---|---|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○	○	○	○

이런 모습, 본 적 있나요?



< 출처: 녹색기자단 블로그 >
먹고 남은 급식을 버리는 모습



< 출처: 세종경제뉴스 2018. 7. 25. >
음식물 쓰레기 수거함

- 전 세계 연간 생산하는 식량 중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양: 생산량 전체의 1/3
- 4인 가족 기준,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



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?

- 환경이 오염됩니다.
 -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.
 - 음식물 쓰레기를 묻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땅과 바다가 오염됩니다.
-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.
 -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된 에너지가 그대로 버려집니다.
 -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.
-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.
 - 연간 음식물쓰레기양을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약 20조 원입니다.
 -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8천억 원입니다.

먹을 만큼 사고 먹을 만큼 담기, 실천해볼까요!

- 먹을 만큼 사기!
 - 식단 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품만 사기
 - 냉장고 정리하기
 - 속 보이는 그릇에 음식 보관하기
 - 가족 식사량에 맞게 조리하기

- 먹을 만큼 담기!
 - 먹기 전, 식단이나 메뉴판 살펴보기
 - 소형 찬그릇 이용하기
 - 먹을 만큼만 담기
 -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사양하기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-	-	○	○

🌱 1회용품 수명, 맞춰보세요!

- 1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입니다.
-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회용품, 한 번 사용 후 지구에서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
- 며칠 전, 어제, 그리고 오늘, 여러분이 사용한 1회용품, 무엇인가요? 옆 그림에서 찾아보세요.



< 출처: 서울특별시의회 공식블로그 >

🌱 벗겨야 사는 가게,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파는 가게, 가보셨어요?

- 이 가게에는 비닐·플라스틱·포장 용기가 없습니다.
- 대신 저울이 있습니다.
- 사려는 사람은 담아갈 용기를 준비해와야 합니다. 일회용 용기는 곤란합니다.
- 미처 용기를 준비하지 못한 손님에게는 친환경 용기를 판매하기도 합니다.



출처 : 더피커 Facebook



출처 : 고대신문 2020. 9. 20.

🌱 일회용기(품)와 착한 이별(내다 버리기), 우리 같이 용기 내기 실천해볼까요!

나무젓가락, 플라스틱 수저	➔	개인 수저(통)
종이컵 등 일회용기(품)	➔	컵, 텀블러, 도시락, 다회용기
화장실 종이 타월	➔	개인 손수건
비닐팩, 비닐 봉투	➔	에코백, 장바구니
개별 포장 상품	➔	포장·용기 없는 상품

학교	학급	가족	개인
-	-	○	○

신박한 정리, 그게 뭐죠?

- 신박하다: 새롭고 놀랍다 (출처: 국립국어원 우리말샘)
- 신박한 정리: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표현으로,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생활 공간을 정리·구성하고 그 외 것들은 나누는 활동을 의미합니다.



- 나만의 공간인 ‘집’의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방송 프로그램

신박한 정리, 왜 하나요?

-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
- 공간을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
- 내 생활이 곧 지구를 위한 생활이 됩니다.

신박한 정리, 실천해볼까요!

1단계



- 생활 공간 살살이 살펴보기

2단계



- 비우기, 또 비우기
 -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웁니다.
 - ‘필요’가 아니라 ‘욕구’로 가지고 있던 것들과 이별합니다.
 - 추억이 쌓인 물건은 사진이나 파일로 간직하고 비웁니다.
 - 비운 것 중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모아둡니다.

3단계



- 신박하게 정리
 - 공간별 역할을 정하고 그에 맞게 정리합니다.
 - 같은 용도의 물건은 함께 모아 정리합니다.
 - 가벼운 정리도구 활용하여 보기 좋고 찾기 쉽게 정리합니다.

4단계



- 따듯하게 나눔
 - 내가 비운 것 중 누군가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나눕니다.
 - 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.

5단계



- 내 생활 = 지구를 위한 생활
 - 덜 소비하고 착하게 소비하고, 신박한 정리를 생활화합니다.